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4. 13.(일) 12:00
(지 면) 2025. 4. 14.(월) 조간

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, ‘2025년 집중안전점검’ 실시

- 취약 시설물 22,884개소 대상 민·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(4.14. ~ 6.13.)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, ‘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’ 개최

□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(월)부터 6월 13일(금)까지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‘2025년 집중안전점검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·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,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.

○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(금)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‘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*’를 개최하고,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.

* (참석) 27개 중앙부처, 17개 시·도, 10개 공공기관 등

□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,884개소(중앙부처 6,247개소, 지자체 1만 6,637개소)로,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, 국민이 ‘안전신문고’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.

※ 주요 시설 유형 : 다중이용시설, 숙박시설, 공사현장, 요양시설 등

○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,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, 초음파 탐사기,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.

-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,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,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, 보수·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.
- 아울러,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‘자율안전 점검 캠페인’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예정이다.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·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,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 하는데 민·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	책임자	과 장	이훈구 (044-205-4240)
		담당자	사무관	송진영 (044-205-424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